

명절 성수기, 축평원의 축산물 수급 전시 상황보고서

고객홍보팀/서울지원 함은미 대리



야근의 생활화- 성수기 축평원은 눈부시게 밝다

명절은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육류성수기죠.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과 가족들이 함께 먹을 식재료, 여기에 선물용까지. 특별한 날만큼 좋은 고기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축산물 매장을 들썩이게 합니다. 특히 이번 설은 연휴도 긴 황금연휴. 불황이라 어렵다 하지만 명절을 맞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아직은 공사장에 둘러싸인 섬과 같은 입지에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라도 그 영향이 안 미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업장들도 명절의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일반적인 명절의 즐거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축산물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한 발 앞서 성수기 물량들이 쏟아지며 일복이 터진 거지요.

이번 설 명절에도 축평원은 설 육류성수기를 맞이하여 특별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등급판정 업무의 핵심 평가사업본부는 등급판정업무 증가와 공휴일 등급판정 등에 따른 상황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등급판정 관련 문의나 작업장 휴무안내와 같은 고객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상황반을 편성·운용했습니다.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20일. 평가사업본부 직원들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돌아가며 근무했습니다. 평일은 물론 휴일까지 쭉욱~이요.

축산물이력제 사업의 중추인 이력사업본부는 사육·도축·유통 단계 이력제 전산신고 업무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이력지원실 콜센터의 연장근무를 실시했습니다. 평상시라면 고객지원실(기관 대표 및 등급판정 콜센터)이나 이력지원실(이력제 콜센터)은 외부 용역이기에 오후 6시 칼같이 운영이 종료되지만 특별 대응 체제 앞에 예외는 없죠. 지원실의 경우 평일은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렸습니다.

본원의 특별 상황반은 전체 지원의 업무 현황을 살피며 원활한 지원 업무지원과 이를 위한 사내외 불편사항 최소화가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명절 성수기에는 평소에 비해 더 빨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금 더 분주하긴 해도 지원처럼 직접 등급판정을 하지는 않기에 업무 자체에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만, 일이 늘어난 만큼 만에 하나의 사건·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가 강화됩니다. 특별 상황반 운영기간에는 휴가나 출장도 지양해야 합니다.

지원은 좀 더 본격적입니다. 산적한 소·돼지·계란·닭고기들로 거의 '전투모드'거든요. 전월에 비해 판정 물량이 급증한 것은 더 말해야 입만 아픈 당연지사. 게다가 올해는 전년 동월, 같은 설 성수기에 비해서도 등급판정 물량이 늘었고, 근무시간도 늘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해보다 더 빨리 찾아온 것 또한 여느

성수기인 이 시기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소, 돼지.. 모든 게 정신없어 보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거의 전쟁통과 같습니다. 재빨리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초조해하는 유통업체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판정하고자 힘쓰는 평가사 모두에게 하루 업무 중 가장 바쁜 시간이지요.



열띤 판정이 이뤄지는 예냉실 말고도 성수기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저희 작업장 앞에 있는 판매장입니다. 퇴근길 판매장을 스쳐 지나다 보면 평소에는 한적해 보이던 판매장이 요즘 들어 고기를 찾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도 직업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에 어머니와 함께 명절에 재래시장을 가면 그저 '사람들이 많구나~' 정도만 느꼈었는데, 축평원에 입사를 하고부터는 시장을 가든, 마트를 가든 사람들이 북적이는 정육점이 제일 먼저

때보다 분주했던 성수기의 한 원인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보니 하루를 꼬박 새워 넘기며 등급판정을 한 곳도 부지기수였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말 입사 이래 아직 몇 번 지내지 않은 명절 성수기입니다만, 쓰나미 같은 성수기의 폭풍 영향력 속에 쑥쑥 성장한 서울지원 함은미 대리의 성수기 이야기입니다.

눈에 들어오며 '아! 이제 성수기가 왔구나!' 하고 가장 먼저 느끼게 된답니다.

사실 판정을 하면서는 늘어난 물량으로 힘든 마음에 잠시 '이 많은 고기들이 다 소비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하는데 막상 밖으로 나와서 느껴보니 '괜한 의구심을 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참 사람이 일할 때 생각과 먹을 때 생각이 이렇게 다르답니다.

그래도 저희가 판정한 소·돼지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어느 가정의 행복한



명절상에 놓일 생각을 하니깐 한편으로 뿌듯하면서도 더욱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직업의식이 생깁니다.

이번 설이 지나고 나면 추석과 설, 1년 중 맞이하는 두 차례 성수기를 모두 경험하게 되는데요, 1년 동안의 축평원 및 작업장의 사이클을 겪고 나니 무언가 평가사로서 제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평가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에서 더 성심성의껏 노력하는 평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질 좋은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소비를 위해 우리 축산물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행**